

中國 淸 王朝時代와 日本 江戸時代의 美意識에 따른 化粧文化 비교 연구*

안 현 순 · 고 정 민
(광주보건대학교)

1. 서론

인류가 태동한 후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형성된 생활문화 속에서 의복과 함께 化粧은 인식되고 발달되었다. 즉, 생활전반에 내재된 美意識이 복식 뿐만아니라 화장법에도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화장술은 문화의 내부 원인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수의 문화가 서로 교차할 때, 이문화의 미의식에 영향을 받아, 미추의 기준이나 화장법이 변화하는 현상도 드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동아시아’라는 말을 수도 없이 접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국·일본 등이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 아시아의 다른 지역들과도 구별되는 무엇인가 동질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즉, 일종의 문화적·역사적인 의미까지 포함하면서 통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고대부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로서 오랜 역사 속에 한자문화

* 이 논문은 2012년도 광주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3012041).

와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체계를 공유했으며, 문화전반의 다양한 분야를 서로 교류하며 지내왔다. 이러한 문화현상은 양국의 화장문화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대인 中國 淸 王朝時代와 日本 江戸時代의 시대적 배경 및 미의식을 살펴보고, 또한 여성들의 화장법을 고찰하여 양국의 미의식이 화장법에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살펴 본 후, 양국의 화장법의 차이와 유사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화장문화와 관련된 인물화, 고분벽화, 풍속화, 사녀화, 역사서, 시조, 열녀전, 소설 혹은 개인의 문집 및 선행논문과 문헌 등을 통해 中國 淸 王朝와 日本 江戸時代의 화장법을 분석한다. 특히 문헌연구만으로는 화장법에 대한 한계점이 있으므로 인물묘사는 물론 일상생활까지 있는 그대로 표현한 그림은 역사를 기술한 문헌자료의 한계성을 보조하며 그 시대의 화장문화를 묘사하는 귀중한 자료라 생각된다.

II. 시대적 배경

1. 中國 淸 王朝時代

淸 王朝(1636~1911)는 중국을 지배했던 소수민족의 왕조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통치기반을 유지했던 왕조이다. 淸 태조 努爾哈赤 이후 1911년 신해혁명으로 淸 왕조가 막을 내리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였으며 대외적인 조공외교를 통하여 활발한 문화교류를 진행하였다. 淸代의 피지배층이었던 한족은 만주족의 풍속을 거부하다 탄압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滅滿興漢 反淸復明 사상이 싹트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淸 왕조는 한족에 대한 문화적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장려책도 병행하여 강희 乾隆皇 시기에 문화의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淸代에는 얼굴화장 뿐만 아니라 頭式, 손톱, 전족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화장과 치장이 발달하였다. 淸代 여성들은 모두 긴 목에 여윈 어깨, 버들잎

같은 자태, 길고 흰 얼굴, 붉은 입술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는 唐代 이후 불교적 미인상에서 상당히 벗어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清代에 이르러 비교적 표준화된 미인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2. 日本 江戸時代

江戸時代는 徳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가 征夷大將軍(세이이 다이쇼군)에 임명되어 幕府를 개설한 1603년부터 15대 將軍(쇼군) 慶喜(요시노부)가 정권을 조정에 반환한 1867년까지의 봉건시대¹⁾이다. 이 시기 士農工商의 신분제도가 확립되며 사회의 질서가 안정되는 한편, 태평한 세상이 되면서 상공인이라 부르는 町人(조닌)들은 부를 축적하면서 문화의 주역이 되었다. 歌舞伎(가부키)관람을 위해 정성껏 치장하고 가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큰 즐거움이었고, 이것은 江戸의 화장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武家社會에서 화장은 여성의 소양으로 이전의 귀족사회의 관례에서 영향을 받아 예의범절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町人の 복장이나 화장은 경제력을 배경으로 가부키나 유곽세계의 영향을 받아 화려함과 치장을 즐기는 풍조를 보이는 등 꾸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화장법도 세분화되고 발전해갔다.²⁾

III. 문화전반에 나타난 미학적 배경

1. 中國 清 王朝時代

1) 儒家的 美學

儒家는 中庸을 중시하고, 신체와 마음, 인간과 하늘 간의 화합과 조화를 추구한다. 이는 孔子의 미학비평 원칙이다. 공자는 極端을 반대하며,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인간의 감정까지 모두가 극단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고 주장

1) 井筒雅風 著, 李子淵 譯, 『日本 女性服飾史』, 경춘사, 2004, p.110.

2) 무라사와 히로토 지, 송태욱 역, 『미인의 탄생』, 너머북스, 2010, p.80.

한다. 더불어 극단은 사물 내적인 불안정을 일으키는 大患이라 지적한다. 공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미술작품은 감정을 표현할 때 적당한 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儒家는 ‘禮’와 ‘樂’ 문화를 주장한다. 예는 규범이자 의례이며 질서이다. 인간은 의례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받아야만 이성을 얻고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³⁾ 五行이 서로와 결합하여 세상만물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여섯 가지의 음율이 서로 조화하여 듣기 좋은 음악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和生實物이다. 이를 同而不繼라 하는데 다시 말하면 和는 사물의 모순과 차별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는 통일이고 반대로 同은 사물의 모순과 차별을 부정함을 전제로 하는 同一이다. 이것은 중국역사상 和譜에 관련한 최초의 담론이다.⁴⁾

儒家 문화는 陰과 陽간의 상호조화를 강조한다. 음기와 양기의 결합으로 만물이 생성된다. 더불어 음기와 양기가 지속적으로 작용되어가면서 모종의 생동이 생긴다. 이러한 음과 양의 상호작용과 상호전화 그리고 상호의존은 범의 사상이 형성된 다른 하나의 儒家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2) 道家的 美學

道家 미학이 말하는 ‘道’는 생명과 우주를 초월하는 ‘無’이다. 이는 원시적인 本性和 本色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고, 모든 인위적인 의도를 소멸하고 모든 명확한 가치취향을 거절하고, 모든 감성적 자극을 부정하고 모든 형태특징을 가지는 미, 심지어 미를 추구하는 행위를 포기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는 주체의 행위 및 심리적인 無爲로 표현되고 하늘과 땅이 미분화되었던 원고시대의 사회 이상을 동경하고 어떤 無慾의 초월을 열망한다. 미를 추구하는데 자연스러움과 소박함을 강조한다. 더불어 자신을 없애고 자신을 초월하는 것을 주장하고 세계와 우주를 초월하는 허무한 미의 상태를 추구한다.⁵⁾ 道家는 자연과 같은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

3) 李澤厚, 『華夏美學』, 天津社會科學院出版社, 2001, p.28.

4) 『國語·鄭語』, “和生實物, 同則不繼”, “聲一無聽, 物一無文, 味一無果”

5) 于美群·蘇錦榮, 「棧折中國繪畫的留白之美」, 嶺州學院學報, 第15卷, 第4

에, 모든 인위적 형식으로 존재하는 미를 반대하고 無我和 無心을 강조한다.⁶⁾ 즉 주체를 객체의 생명으로 융합시키고 자연과 호흡을 맞추어 주체의 모든 주체의식을 無의 상태로 전환시킨다.

2. 日本 江戸時代

1) 見立(미타테)

見立(미타테)라는 용어는 예술 각 분야 즉, 와카, 하이카이, 쿄오카, 게사쿠, 우키요에, 가부키, 다도, 정원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미 사회의 공통의 재산이 되어 있는 지식에 착상을 얻어 거기에 참신한 감각을 넣어서 재창조하는 기법이다. 이는 江戸時代に 나타난 見立의 근저에 있는 정신을 풍류라고 파악하여 설명할 수 있다⁷⁾. 見立의 발상법이야말로 일본민족의 활성의 근원으로서 문예, 미술 등의 예술구조를 비롯하여 형태를 만들어내는 역할, 미학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라 해도 좋다. 일본 문화 속에 見立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연상·형태의 유사성에 의한 비유
- (2) 자연물의 미니어취·형태의 모방
- (3) 고전의 비속화·이미지의 변환
- (4) 문화수용에 있어서의 미타테

이러한 見立의 성격에 의해 나타난 작용을 살펴보면, 오리지널이 존재하고 거기서부터 패러디나 아날로지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이러한 패러디나 아날로지는 오리지널에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체계는 외래문명의 수입과 함께 들어 온 외래의 가치일 뿐 고래의 일본문화 속에서는 오리지널보다 뛰어난

期, 2008.

6) 于美群·蘇錦榮, 전계서

7) 郡司正勝, 「風流の圖像誌」, 第6卷, 白水社

모방을 인정하고 있다. 江戸文化에서 미타테가 사랑 받는 이유는 결국 미타테라고 하는 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얻게 되는 효과가 풍류이며 滑稽이고 때로는 현실풍자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江戸時代는 고전을 비롯한 공통의 지식이 풍부한 시기였다. 그러한 공통의 지식을 바탕으로 기지와 해학을 즐기는 見立가 왕성하게 행하여졌다.⁸⁾

2) いき(이끼)

いき(이끼)는 江戸시기 町人이 이상으로 삼은 미적, 생활적 이념이다. ‘いき(이끼)’란 일본문화의 특색을 이루고 있는 도덕적 이상주의와 종교적 비현실성의 형상인(形相因)에 의해 질료인(質料因)인 미타가 자기의 존재 실현을 완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江戸時代는 신흥 町人의 대두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귀족에서 무인, 서민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17세기 후반 겐로쿠 시대의 京都, 大阪(경관)지방 여러 도시의 번영은 농촌의 생산력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신흥 町人계층은 농산물의 상품경제와 관련되어 있다. 무인사회에 대항하려고 한 町人の 취미와 미적 추구가 ‘いき’라든가 ‘しふい(시부이)’라는 탐미주의를 낳은 것이다. 江戸 전기의 ‘粹(쓰이)’와 함께 ‘つう, 通(쓰)’가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粹(쓰이)’는 부유한 町人の 재력을 기반으로 힘차고, 호화롭고, 귀족적인 세련을 토대로 하는 謳歌(현실구가)를 뜻한다.⁹⁾

3) かるみ(가루미)

かるみ(가루미)는 표현을 가볍게 하고 보통 말로 읊는 것을 말한다. さび(사비)의 경지에 도달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고 진지한 노력을 하게 된다. 그것이 かるみ이다.

さび에서 かる미로의 전개는 중세의 ‘요염(고상한 아름다움, 상냥하고 품위있는 미)’에서 ‘담박’으로의 전개와 같은 경위를 볼 수 있다. 내면적으로

8) 최경국, 「江戸時代の 문화적 이념으로서 「미타테」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vol 17, 1998, p.200.

9) 오가와 마사쓰구 저, 김학현 역, 『일본 고전에 나타난 미적 이념』, 학림신서, 1999, p.27.

보다 깊어진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담박미’가 불교를 매개로 하는 엄격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かるみ’는 서민적 비속성을 띠고 있다. かるみ는 눈 앞의 雪景을 소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실은 그 속에 오묘한 전통적인 風雅가 본의로서 깃들여 있는 것을 말한다.¹⁰⁾

IV. 화장문화비교

1. 中國 淸 王朝時代

淸代 문인 張糊는 그의 저서에서 미인에 대해 “꽃 같은 생김새, 새 같은 소리, 달 같은 표정, 버들잎 같은 자태, 옥 같은 골격, 얼음과 눈 같은 피부, 가을 물 같은 용모, 시사 같은 마음, 한묵 같은 향 등 끊임이 없다”¹¹⁾고 하였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淸代의 여인상은 내외적인 아름다움이 겸비된 미적 표준이 요구되었으며 이는 화장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1) 皮膚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가장 대표적인 피부화장술로 臙脂와 粉을 들 수 있다. 연지는 홍색안료를 위주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통화장품이다. 晉代 崔豹의 <古今注>에 “연지의 이파리는 영경귀의 꽃이나 민들레와 그 모양이 비슷한데, 서역이 그 원산지다. 서역 토착민들은 그 잎으로 염료를 만들어 썼으며, ‘연지’라는 이름을 붙였다. 중국인들은 이를 紅藍이라 부르는데, 가루를 물에 개어 색을 입히고는 그 물든 가루를 얼굴에 바른다. 이를 연지분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다.¹²⁾ 여성들이 화장에 사용하는 연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솜뭉치에 紅監花의 즙을 적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綿燕脂’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작고

10) 오가와 마사쓰구 저, 김학현 역, 전계서, p.146.

11) 楊陽 著, 조정래 역, 「다원일체화 된 중국 고대여성의 아름다움」, 미술사학보 제25집, p.113.

12) 張競 著, 李沐 譯, 『미녀란 무엇인가』, 뿌리와의파리, p.235.

얇은 화편으로 가공하여 ‘金花燕脂’라고 부른다. 이는 모두 음지에서 건조한 후에 사용할 때는 소량의 맑은 물에 적셔야만 바를 수 있다. 연지가 사용되면서 중국여성의 화장은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졌다. 연지는 분과 조화시켜 사용되었는데, 뺨 부위에 안색이 너무 희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데 주로 사용되었고 당대에 楊貴妃가 연지화장을 애용하여 연지를 바르는 풍속은 민간에까지 퍼지며 더욱 성행하였다. 연지화장은 청나라 말기 신식 교육의 영향으로 점차 사라졌다.

清代에는 活石과 같이 잘고 부드러운 광석을 연마하여 제작한 石粉¹³⁾이 있었다. 분의 색채는 원래는 백색이었지만 점차 여러 색으로 다양하게 제작되었고 각종 향료가 첨가되었다.

陶谷의 《清異錄》에 “강남 사람인 李進은 建陽에서 나는 茶油 花鈿을 사용하였다. 크기와 형태가 모두 다르고 매우 귀엽다. 궁안의 여인들은 얼굴에 이것을 사용해서 淡粧(淡粧)을 하였다...”¹⁴⁾는 기록이 있어 화전이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隨緣 下士の 《林蘭香》에 “한 남자에게 다섯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화장을 하고 옷을 입는 것이 모두 달랐다. 큰 부인은 종종 桃花裝을 했다”¹⁵⁾는 기록과 王露潛의 《崇禎宮詞》에 “桃花裝은 열고 酒暈粧은 질다. 마치 脂粉을 온몸에 바른 것 같다”¹⁶⁾는 기록이 있다. 이들 기록에서 당시에 다양한 紅粧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徐珂의 《清稗類鈔》에는 “光緒帝 시기에 상해의 기생들은 진하게 연지화장을 하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대가집의 규수들도 분분히 그것을 본받았다. ...여학당이 크게 성하면서 여학생들은 얇은 화장과 단아한 복장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연지의 화려함을 모두 씻어내서 현재는 분과 연지를 바르는 악습은 다시 부활되지 않았다”¹⁷⁾ 는 구절이 있다. 이는 청대 말기에 서구식 여

13) 粉의 유형에는 米粉과 胡粉으로 대별되는데, 미분이란 쌀을 갈아서 향료를 넣은 것으로 쌀가루 米와 分이 합쳐져서 미분이라 하며, 호분은 미분에 비해 점성이 뛰어나며 납과의 화학처리를 통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분(鉛粉)이라고 하는데 미분에 비해 피부흡착력이 매우 좋은 특징이 있다.

14) 江南晚李進建陽茶油花子 大小刑制各別 極可愛 宮嬪縷金于面 皆以淡粧

15) 伍位奶奶粧束各有風致……大娘常作桃花粧. 隨緣, 《林蘭香》, 沈陽春風文藝出版社, 1985, p178.

16) 淡作桃花粧酒暈 分明脂粉畫全身. 王露潛, 《崇禎宮詞》, 借月山房滙鈔本 清嘉慶三十年刊行

성교육이 보편화됨으로써 여학생들이 소복과 얇은 화장을 선호하게 되어 연지화장의 양식이 변화, 소멸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림1> 실로 2천여년 동안 성행하였던 연지의 紅化粧 풍속은 清代末에 비로소 쇠락한 것이다.

2) 眉

고대로부터 눈은 인간의 성정을 나타내는 부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므로 중국여성들은 눈 부위의 화장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 나방의 굽이진 촉각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清代의 눈썹화장은 섬세하고 곡선적이어서 자못 수려한 기풍의 여성미를 강조하였으며,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화장술이 보다 구체적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눈썹화장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 다양함 가운데서도 보편적인 양식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주로 눈썹의 길이, 눈썹의 굽기, 굴곡과 농담에 나타나는데, 그 시대의 사회상이나 심미안과 관련이 있었다.¹⁸⁾ 황후의 눈썹은 明代와 같이 섬세하고 곡선적이거나 술을 진하게 표현하고 눈꼬리를 올림으로써 황후의 <그림2> 권위와 강인함을 강조하였다.



<그림1> 女樂圖



<그림2> 孝賢純皇后像

17) 光緒時，滬妓喜施極濃胭脂 因而大家閨秀 粉粉效尤……自女學堂大興 而女學先无不淡裝雅服 洗盡鉛華 無復當年涂粉抹脂之惡態 北里赤效之。商務印書館 排印本，第146冊，1917，p.32.

18) 박보영, 『한국 중국 일본 여성의 색조화장문화』,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54.



〈그림3〉美人圖



〈그림4〉仕女圖

朱慶餘는 시험에 임박하여 수부원의랑 장적에게 보내는 시¹⁹⁾에서 “화장을 마치고 나지막히 남편에게 묻는다. 눈썹화장이 유행에 맞느냐고”²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처럼 눈썹의 화장은 전체 안면화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대에 따라 유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漢書·卷七十六·張敞列傳〉에 나오는 장창의 부부애와 관련된 기록은 눈썹화장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고사이다.²¹⁾ 장창의 이야기를 들은 황제는 웃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는 중국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눈썹화장에 관련된 이야기로 전해진다. 장창이 당시 그의 애처에게 눈썹을 그려줄 때 사용되었던 안료는 黛螺라고 추측된다. 소위 黛는 원래 청록색의 안료인데 화가들이 주로 그림 그릴 때 사용하던 것으로 여성들이 눈썹을 그리는데도 사용하였다.

중국전통 화장술에서 눈썹화장은 매우 다양하였다. 楊貴妃와의 사랑으로 유명한 唐 玄宗은 일찍이 화공에게 명하여 아름다운 눈썹을 가진 여인들을 묘사한 十眉圖를 그리도록 하였다.

費丹旭²²⁾은 清末에 미인화로 이름이 높았던 화가로서 청초하면서도 관능

19) 近試上張籍水部.

20) 妝罷低聲問夫婿，畫眉深淺入時無.

21) 敞無威儀。時罷朝會，過走馬章臺街，使御吏驅，自以便面拊馬。又爲婦畫眉，長安中傳‘張京兆眉黛’，有司以奏敞，上問之。對曰：“臣聞閨房之內，夫婦之私，有過於畫眉者。”

22) 清代 후기(1802~1850)의 화가. 자는 子菴, 호는 環溪, 曉樓. 鳴程, 浙江省

적인 아름다움을 풍기는 仕女畫를 많이 그렸다. <그림3>에서 넓고 둥근 이마에서 느껴지는 여린 소녀의 모습이 보이며 가름한 얼굴에 가늘고 곡선을 그리는 눈썹과 눈꼬리가 올라간 가는 눈 그리고 붉은 입술은 수줍지만 관능미를 느끼게 한다.

改琦²³⁾는 서양화의 명암 화법으로 미인도를 그려 고답적인 고대 미녀화법을 타파, 더욱 입체적이고 정교한 미인도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화풍은 자유분방하면서도 옛 격식에 맞고 통속적인 형식을 타파하였다. 눈썹은 초승달 모양으로 가늘고 아름다운 곡선을 강조하였다. <그림4> 초승달에 살고 있는 전설의 여인 嫦娥의 이미지를 떠올려 娥眉라고도 한다. 아름다운 여인을 묘사한 皓齒娥眉는 하얀 이와 부드러운 눈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대 중국인들에게 매력을 주는 눈썹화장술이다. <그림 5, 6, 7>



<그림5> 溥儀妻



<그림6> 溥儀妻



<그림7> 西太后

鳴興의 사람. 처음 上海에 거주, 이어 蘇州로 이주. 32세 이후는 杭州에서 그림을 그려 파는 생활을 했다. 인물, 초상화, 산수, 화훼 등도 잘 하였지만 특히 미인화에 뛰어나, 改琦와 더불어 清末의 대표적 미인화가. 시집 『依舊草堂遺稿』가 있다. 장남인 費以耕이 가업을 이었다.

- 23) 清代 후기(1774~1829)의 화가로 자는 伯鯤, 호는 香白·七蕪, 원적은 新疆省이다. 원조는 무관이며 일설에는 北直隸 사람이라고도 한다. 후에 江蘇省 松江(지금의 상하이 일부)으로 적을 옮겼다. 청년시대에 上海 해관의 巡道인 李廷敬과 친분을 맺어 그의 도움으로 화가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전통적인 미인화에다 明末이래의 寫照技法을 가미하여 강한 선의 묘사로 清朝 미인화에 새로운 화풍을 열었다.

3) 脣

미인의 얼굴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입술의 중요함은 동서고금의 공통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미인을 표현하는 말로 丹脣皓齒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입술화장술은 분이나 연지에 비해서 늦게 출현하였다. 唐의 18대 황제 僖宗과 19대 황제 昭宗에 이르러 여성들이 입술에 연지를 바르는 화장술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 연지는 이마와 볼에만 발랐던 것이다. 《新唐書·卷三十四·五行志》에 따르면 “원화 연간 말년에 여성들은 둥글게 쪽을 지고 몽치 모양의 머리를 하고, 살짝장식도 꾸미지 않고 연지와 분도 바르지 않았다. 오직 검정 기름을 입술에 발라 모습이 마치 슬퍼서 우는 것 같았다. 슬퍼 운다는 것은 걱정하고 가엽게 여기게 하기 위한 모습이다”²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화장술은 당시 그로테스크하고 괴이한 감정을 나타내는 화장술로 인식되곤 하였다. 白居易는 이에 대해 《時世妝》에서 “검정기름을 입술에 바르니, 입술은 마치 진흙 같다”²⁵⁾라고 표현하고 있다. 결국 烏膏(검은색 기름)를 사용한 입술화장은 차츰 자취를 감추었고, 붉은 색 연지를 입술에 바르는 화장술이 나타났다. 입술은 본래의 입술보다 작게 표현하였고 여성의 나약한 이미지 보다는 단아함을 나타내하고자 하였다.

입술화장 방식을 보면, 臙脂²⁶⁾를 이용해서 윗입술은 전부 바르고 아랫입술은 중간부분만 바른다. 그래서 마치 앵두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또한 위·아래 입술의 중간에 한 방울씩 그렸다.

입술화장은 그 濃淡에 따라 명칭도 다양하다. 石榴嬌·大紅春·小紅春·嫩鳴香·半邊喬·萬金紅·聖檀心·露珠兒·內家圓·天宮巧·洛兒殷·淡

24) 元和末 婦人爲圓鬢椎髻 不設鬢飾 不施朱粉 惟以烏膏注脣 狀似悲啼者.

25) 時世妝 出自城中傳四方 時世流行無遠近…烏膏注脣唇似泥

26) 臙脂는 입술연지일 뿐만 아니라 볼 화장 등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중국에서 여성들이 언제부터 연지를 바르기 시작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크게 세 가지 설로 나뉜다. 商代發生說, 周代發生說, 漢代外來說인데, 오대 馬縉의 『中華古今注』에는 “홍은 주왕이 다스리던 시대부터 있었다. 잇꽃의 즙을 농축시켜서 연지를 만든다. 연나라에서 나는 산물이기 때문에 ‘연지’라고 부른다.” 張競 著, 李沐 譯, 전게서, p.234.

紅心·猩猩暈·小朱龍·格雙唐·眉花奴 등이 있는데 모두 색깔의 진하고 옅은 정도에 따른 분류이다.²⁷⁾

화장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부터 붉은 입술은 미인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입술화장 또한 붉은 색이 많이 쓰이게 되었다. 화장재료는 붉은 색을 띠는 紅花²⁸⁾와 돼지기름 등을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2. 日本 江戸時代

일본인은 화장을 포함한 치장에 있어 신분이나 계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였다.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똑같은 화장을 한다는 것은 사회제도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용하지 않고 많은 금지법을 만들어 내었다. 江戸時代 화장의 화려함을 이끌어 냈던 것은 당시 패션리더였던 가부키 배우나 遊女들이었다. 가부키배우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특이한 화장법은 당시 일반 여성들의 본보기가 되면서 江戸 전 시대에 걸쳐 다양한 변화와 함께 화장문화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²⁹⁾

1) 皮膚

일본 江戸時代に 사용한 백분과 연지의 사용은 중국에서 백분 제조법이 전래된 이후 납제의 백분과 수은제 백분, 쌀 등의 곡류 등을 이용한 가루분 등이 다양하게 생산되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흰 피부가 아름답다’는 미의 개념이 전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볼에 사용한 연지 또한 백분에 섞어 사용하는 등 제조방법들을 터득하게 되었다.

27) 杉本正年 著, 문광희 譯, 『동양복장사논고(중세편)』, 경춘사, 1997, p.212.

28) 紅花는 화장품의 원료일 뿐만 아니라, 염료로도 널리 이용되었다. 『南史-齊本紀』 下の 廢帝海陵王에는 “무제 당시 홍으로 물들인 의복을 만들었으며, 조정의 관료들이 이 옷을 착용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육조시대에 ‘연지’가 염료로도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張競 著, 李沐 譯, 전계서, p.237.

29) 이행화·박옥련, 「근세 일본과 한국의 화장문화 비교」, 日本近代學研究 제29호, 2010, p.297.

江戸時代 초기에 주로 사용된 백분은 중국에서 수입하였으나 이후 제조법이 전래되면서 국산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다양한 종류에 따른 미세한 분말상태로 가공됨으로써 새로이 조합된 백분이 그 시대의 유명한 歌舞伎 배우들의 이름이나 가부키라는 상표로 판매되었다.

백분을 바른다는 것은 얼룩 없이 펴 바르는 것으로서 <그림8>에서는 얼굴의 분을 천으로 닦아내고 있다. 에도에서는 분을 두껍게 바른다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천이나 종이로 눌러 밀어내고 닦아서 분이 연하게 보이게 했다. 목덜미에 襟白粉을 바르는 행위는 분을 질게 바름으로써 얼굴이 도드라져 곱게 보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組合 거울을 만들어 백분이 꼼꼼하게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그림9> 얼굴의 백분이 질다면 江戸에도에서는 一本足, 二本足, 윗 지방에서는 二本足, 三本足으로 불렸다.

江戸時代の 小野所町(오노쇼조)는 미인의 대명사이다. 그림 속에서 왼손에 든 것은 붉은 질그릇 술잔이며, 귀이개를 비녀 대신 꽃고 연지를 비우고 있다. 연지는 매우 고가의 화장품으로서 연지가루 한 돈 중 금 한 돈 이라 했다.

名所江戸百景(駒形當吳婦橋, 安政四年, 1857)에는 선홍색으로 물들인 가로로 기다랗게 긴 깃발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표식은 淺草의 駒形에 있었던 中島室百助로서 연지와 백분을 취급하는 점포였다.



<그림8> 溪齋英泉 「美艷仙女香といふ」



<그림9> 豊原国周 「艷姿化粧自慢」

2) 眉

일본여성에게 있어 눈썹 화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눈썹화장의 도구를 黛(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眉墨을 의미하는 것으로〈和名抄〉에서는 눈썹 먹을 의미했는데 후에는 눈썹을 그리는 행위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었다. 예전에는 눈썹을 제거한 위에 먹으로 아름답게 그렸는데 이것을 かきまゆ(가키마유)라고 하였다. 눈썹의 형태는 다양한 양식으로 발달하여 三日月, 鶴眉, 唐眉 등의 명칭이 있었다³⁰⁾. 이러한 일본인의 눈썹화장 양식이 대륙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변형된 눈썹화장은 감정과 결부되었는데, 일본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눈썹을 제거하거나 본래의 눈썹과 매우 다른 위치에 눈썹을 그려 넣는 것 등은 눈썹을 통한 감정전달이 불가능하게 했던 것을 의미한다.³¹⁾〈그림10〉



享保~元文(1716~1741)



寛政5年(1793)



弘化元年(1844)

〈그림10〉 江戸時代 눈썹모양의 변천

3) 唇

입술은 江戸時代 여성을 여성스럽게 연출했던 화장이다. 江戸時代의 입술연지는 주로 紅花에서 추출한 적색 하나만 있었고, 홍화로부터의 추출량이 적어 고가의 연지를 평소 사용하는 것은 상류계급의 여성들이나 부유한 상인, 유녀 등이었다. 〈그림11〉 일본의 입술화장 역시 唐나라의 풍습이 전해진 것으로 江戸時代に 들어서면 유녀의 화장을 모방한 붉은 입술연지를 진하게

30) 久下 司, 『化粧』, 法政大學出版部, 1996, p.24.

31) 大坊都夫·神仙 進, 『被服と化粧の社會心理學』, 北大路書房, 1996, p.131.

발라 두 가지 색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이 유행하였다. 검푸른색의 입술화장은 江戸末期 天保(텐보)의 개혁 이후 폐지되었던 홍색을 열게 바르는 화장법으로 돌아왔다.³²⁾



〈그림11〉 입술연지를 바르는 여인들

4) 黒齒

江戸時代가 되면 黒齒는 화장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이 되었다. 특히 흑색은 다른 색으로 염색하지 않았으므로 정조가 굳은 여자의 상징이 되며, 이것에 의해 여성의 연령이나 직업, 미혼, 기혼을 나누었다. 齒黒水의 제조법으로는, 우선 끓는 물에 불에 데운 쇠뿔을 담그고 쪄, 누룩, 설탕 등을 담근다. 이 물을 병 같은 것에 넣어 밀봉하면 수개월 후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흑치 물들이기는 고대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 독특한 미의 기준이 국가 간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동시대인 中國 淸 王朝時代와 日本 江戸時代의 시대적 배경 및 미의식을 살펴보고, 또한 여성들의 화장법을 고찰하여 양국의 미의식이

32) 이행화·박옥련, 「근세 일본과 한국의 화장문화 비교」, 日本近代學研究 제29호, 2010 p.303.

화장법에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中國 淸 王朝時代 미학의 주류는 유가적 미학과 도가적 미학으로 구분된다. 유가적 미학은 陰과 陽간의 상호조화를 강조하며 이로써 만물이 생성하고 지속적으로 작용되어가면서 모종의 생동이 생겨 이러한 상호작용과 상호전화 그리고 상호의존은 다른 하나의 유가근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가적 미학은 원시적인 본성과 본색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고, 모든 인위적인 의도를 소멸하고 모든 명확한 가치취향을 거절하며 모든 감성적 자극을 부정하고 모든 형태특징을 가지는 미, 즉 미를 추구하는데 자연스러움과 소박함을 강조한다.

2. 日本 江戸時代 미학의 주류는 見立(미다테), いき(이끼), かるみ(가루미)로 구분된다. 江戸時代는 고전을 비롯한 공통의 지식이 풍부한 시기였다. 그러한 공통의 지식을 바탕으로 기지와 해학을 즐기는 미다테가 왕성하게 행하여졌는데 이런 미다테로서 얻어지는 효과는 풍류이며 골계(滑稽)이고 때로는 현실풍자이다. いきは 江戸時代 町人(조닌)이 이상으로 삼은 미적, 생활적 이념이다. 무인사회에 대항하려 한 町人の 취미와 미적추구가 い끼라는 탐미주의를 낳았고 이러한 미의식은 호화롭고, 귀족적인 세련미를 표현하게 하였다. 또한 かるみ는 서민적 비속성과 내면적으로 보다 깊어진 경지의 담박미를 띠고 있다. 이는 い끼와는 대조적으로 江戸時代의 귀족과 서민이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각각의 신분에 따른 미를 정립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3. 中國 淸 王朝時代 화장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피부화장술로 臙脂와 粉을 들 수 있다. 여성들이 화장에 사용하는 연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솜뭉치에 홍감화(紅監花)의 즙을 적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綿燕脂’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작고 얇은 화편으로 가공하여 ‘金花燕脂’라고 부른다. 뺨 부위에 안색이 너무 희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데 주로 사용되었고 당대에 楊貴妃가 연지화장을 애용하여 연지를 바르는 풍속은 민간에까지 퍼지며 더욱 성행하였다. 연지화장은 청나라 말기 신식 교육의 영향으로 점차 사라졌다. 淸代의 눈썹화장은 섬세하고 곡선적이어서 자못 수려한 기풍의 여성미를 강조하였으며, 주로 눈썹의 길이, 눈썹의 굵기, 굴곡과 농담에 나타나는데, 그 시대의 사회상이나 심미안과 관련이 있었다. 입술은 본래의 입술보다 작게 표현하였

고 여성의 나약한 이미지 보다는 믿음직하고 단아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4. 日本 江戸時代の 화장문화에서 피부화장술로 주로 사용된 백분은 중국에서 수입하였으나 이후 제조법이 전래되면서 국산화가 시작되었다. 백분을 바른다는 것은 얼룩 없이 펴 바르는 것으로서 분을 두껍게 바른다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천이나 종이로 눌러 밀어내고 닦아서 분이 연하게 보이게 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흰 피부가 아름답다’는 미의 개념이 전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연지는 매우 고가의 화장품으로서 연지가루 한 돈 중 금 한 돈 이라 했다. 또한 눈썹화장은 매우 중요한 부위였는데 눈썹의 형태는 다양한 양식으로 발달하여 三日月, 鶴眉, 唐眉 등의 명칭이 있었다. 입술은 유녀의 화장을 모방한 붉은색을 진하게 발라 두 가지 색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이 유행하였다. 흑치는 화장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이었는데 이는 이미 고대 중국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독특한 미의 기준이 국가 간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주제어

유가적 미학, 도가적 미학, 이끼(い끼), 가루미(かるみ), 화장문화

❖ 참고 문헌

- 久下 司, 『化粧』, 法政大學出版房, 1996.
大坊都夫·神仙 進, 『被服と化粧の社會心理學』, 北大路書房, 1996.
무라사와 히로토 著, 송태욱 譯, 『미인의 탄생』, 너머북스, 2010.
문광희 역, 『동양복장사논고(중세편)』, 경춘사, 1997.
박보영, 『한국 중국 일본 여성의 색조화장문화』,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隨綠, 『林蘭香』, 沈陽春風文藝出版社, 1985.

- 楊陽 著, 조정래 역, 「다원일체화 된 중국 고대여성의 아름다움」, 미술사학보 제25집. 오가와 마사쓰구 저, 김학현 역, 『일본 고전에 나타난 미적 이념』, 학림신서, 1999.
- 李澤厚, 「華夏美學」, 天津社會科學院出版社, 2001.
- 이행화·박옥련, 「근세 일본과 한국의 화장문화 비교」, 日本近代學研究 제29호, 2010.
- 張競, 이목역, 『미녀란 무엇인가』, 뿌리와이파리, 2004,
- 于美群·蘇錦榮, 「棧折中國繪畫的留白之美」, 嶺州學院學報, 第15卷, 第4期, 2008.
- 郡司正勝, 「風流の 圖像誌」, 第6卷, 白水社.
- 이경선 외, 「한국과 중국 여성의 화장문화에 나타난 연지 화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4(2), 2003.
- 이연식, 『유혹하는 그림 우키요에』, 아트북스, 2009.
- 코이케 미츠에, 노구치 히로미, 요시무라 케에코 著, 『일본복식사와 생활문화사』, 어문학사, 2005.
- 九鬼周造 著, 이윤중 역, 『いき의 構造』, 서울: 도서출판 한일문화교류센터, 2001.
- 尾川正二 著, 김학현 역, 「일본고전에 나타난 미적 이념」,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일본학연구소, 소화출판, 1999.

❖ ABSTRACT

Comparison Study on the Make-up Cultures
between the Ching dynasty in China and the Edo Age in Japan
based on their Aesthetic Consciousness

Hyun-soon Ahn · Jung-min Koh

China and Japan are geographically close and the two countries had shared the Chinese Character Culture and the thoughts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since the ancient age. They also actively exchanged culture in various areas.

Some cultural exchanges had been caused by surrounding environment and culture had been introduced to other country in a natural way; while some cultural exchanges had been forcibly introduced through artificial process.

It is believed that such cultural phenomenon must have had impact on the make-up cultures of the two countries and it was assumed that there must have been commons and differences in the make-up cultures of the two countries.

This study explor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hing dynasty of China and the Edo Age in Japan, which are in the same time frame, and studied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two countries at the time. Then the make-up style of ladies in the two countries had been studied to find out how their aesthetic consciousnesses had been expressed in the make-ups of the two countries. Then the commons and differences in make-up skill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d been identified.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main stream of aesthetics during the Ching dynasty in China can be classified into Confucianism aesthetics and Taoism aesthetics. On the other hand, the main stream of aesthetics during the Edo Age in Japan can be classified into “mitate(見立)”, “ikki(ゝゝ

き)” and “garumi(かるみ).

The skin care in the make-up culture of Ching dynasty in China was based on “rouge (胭脂, yanzhi)” and “powder(粉, fen)”. The Ching ladies loved the make-up style using rouge. It had been same both in the high society and common people. The eyebrow care was delicate and curved so that the feminine beauty with elegant spirit could be emphasized. The lips had been expressed to be smaller and the ladies tried to express elegance and reliability, rather than frail and tender feminine image.

The skin care in the make-up culture of Edo Age in Japan focused on even applying of white powder so that the face would look soft. The eyebrow make-up wa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make-up. The shapes of eyebrow had been advanced in various styles and there had been eyebrow make-up styles such as “crescent-shaped brow (三日月), “crane style brow (鶴眉) and “Tang style brow (唐眉). The lips had been applied of thick red color, imitating the make-up skill of the ladies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The lips make-up skill expressing the lips in two colors had been quite popular. Among the make-up skills during the Edo Age in Japan, the “black teeth (齒黑)” can be said as the most unique make-up style of Edo Age.

Keywords

Buddhism, Taoism, ikki(いき), garumi(かるみ), make-up culture

논문접수일: 2012. 05. 10

심사완료일: 2012. 05. 21

게재확정일: 2012. 05. 25